

# 거베라에서 아메리카잎굴파리의 발생 및 가해양상, 기생봉에 의한 기생을 그리고 유색끈끈이트랩 유인량 비교

박종대, 구용수, 최덕수, 김상수<sup>1</sup>

전남농업기술원 식물환경연구과, <sup>1</sup>순천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거베라 포장에서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가해양상과 각 층태의 발생소장 및 기생봉에 의한 기생을 그리고 유색트랩에 의한 유인량을 색깔별, 트랩의 설치위치별로 조사하였다.

거베라 피해엽율은 정식후 1년차에 89.7%(31.3~99.0%), 2년차에 85.5%(71.9~93.9%)이었다. 피해주에서 갱도에 의한 피해엽율과 흙즙흔에 의한 피해엽율은 각각 44.7%와 55.3%이었다.

황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된 성충은 5월하순에 정식한 경우 정식 1년차에는 초기부터 성충이 포획되었으며 8월상순까지 포획량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8월하순까지는 밀도가 감소하다가 9월상순부터 다시 포획량이 증가하였다. 정식 2년차에는 4월하순부터 성충이 포획되기 시작하여 5월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7월상순까지 높은밀도를 유지하다가 7월중순부터 점차 밀도가 감소하여 9월하순부터는 낮은 밀도를 유지하였다. 유충과 번데기 밀도변동은 성충발생과 비슷하였으나 번데기 발생 peak가 유충보다 일주일 가량 늦었다.

거베라에서 기생봉에 기생당한 유충수는 정식 5주째부터 많아지기 시작하여 8월하순까지 기생율이 평균 65%로 높았으나 9월상순부터는 50%수준이었다.

유색끈끈이트랩에 유인량은 황색에서 가장 많았으며, 트랩의 설치위치별로는 지상 30~60cm범위에서 포획량이 많았다.